

세월호 유가족 위로하고 순교 성지 찾아 평화 메시지



대통령부터 장애인까지 만남... 25년대교회 폐막미사 집전

명동성당 미사에 위안부 할머니·쌍용차 해고자 등 초대

4박 5일 방한 일정

14~18일 한국을 찾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순교의 성지를 방문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방문 첫날에는 정치인과 성직자들을 만난다. 교황은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만나는 것으로 방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15일 오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는 교황이 한국 가톨릭 신자들과 국민들을 만나는 첫 공식 일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초대됐으며 교황은 미사 중 강론을 통해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성모승천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하늘로 불려 올라갔음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8월15일이 바로 성모승천 대축일이었다.

교황은 이어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 신부 생가 터인 충남 당진 솔피성지에서 열리는 아시아청년대회 참가자와 만남의 행사를 진행하며 가수 보아 등 아시아 청년 대표들과 오찬도 갖는다.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천주교 초기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미사를 주례한다. 교황이 시복 대상자의 땅에서 직접 시복식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광화문은 한국 천주교 순교 역사의 현장이다. 순교자들이 고초를 겪었던 조선 시대 형조, 의금부와 함께 공식처형장이자 최대 순교 성지인 서소문 성지 등이 광화문과 연결돼 있다. 교황은 미사 참석 전 서소문 순교성지를 찾아 한국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한 뒤 시청 앞에서 광화문 앞까지 퍼레이드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공식 초청된 신도 17만명이 참여하는 시복식에는 장애인 1000명도 특별초청됐으며 시민 등 최대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충북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을 찾아 장애인들을 만나며 한국의 수도자 4500여 명과 평신도 대표들을 접견한다. 한국 방문 4일째인 17일에는 충남 서산 해미순교 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 60명을 만난 데 이어 해미읍성에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국내 대표들과 오찬도 갖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다.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한 이래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설을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 할머니, 쌍용차 해고자, 밀양 송전탑 관계자, 강경마을 주민,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들도 함께한다.

미사 후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간단한 환영식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끝내고 출국한다. 교황은 방한 기간에 서울 종로의 주한교

황청대사관에 머문다. 장거리 이동 때는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전용헬기를, 단거리 이동은 기자자동차 '소울'을 이용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일하게 한국 찾은 요한 바오로 2세, 광주 방문 5·18 아픔 치유

역대 교황의 한국 나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을 찾은 두번째 교황이다. 이전 265명의 교황 가운데 한국을 찾은 교황은 두차례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가 유일하다.

역사적인 첫 방한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5월 3~7일이었다. 한국 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식이 계기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통해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요한 바오로 2세는 광주·전남과 인연이 깊다.

바오로 2세는 한국 첫 방문시 광주를 찾아 미사를 집전하고 1980년 5월의 광주 아픔을 기억하며 광주 시민들을 위로했다. 교황은 특히 5월 4일 광주 방문 때 대규모 미사 집전 행사장인 무등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5·18 상처가 배어 있는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거쳐 갈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지난 12일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무등경기장 자리에 신축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외야 출입구 앞에서 교황

DJ 구명운동으로 인연

정부 반대 불구 속로도 한센인 찾아

요한 바오로 2세 광주 방문 기념비 제막행사를 거행했다.

교황은 또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곳을 보여달라"며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로도 한센인들을 찾았다. 교황은 한센병 환자들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진히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격려하고 축복했다.

첫 방한 당시 요한 바오로 2세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 트랩 아래 엎드려 땅바닥에 입을 맞추던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순교자의 땅"이라는 말을 되뇌면서 한국 땅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또 도착 성명에서는 '논어'를 인용해 한국어로 "뜻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오로 2세는 첫 한국인 사제 김대건 신부를 비롯

한 천주교 순교자 103명을 성인으로 모시는 역사적인 시성식을 주례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는가 하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젊은이들과의 대화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군사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리겠다'면서 들고 온 최후탄 상자를 흔쾌히 받는 등 열린 모습을 보여줬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9년 10월 5~8일 두 번째 방한했다.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위해 서였다. 65만 명이 몰린 여의도광장 행사에서 남북한 화해를 기원하는 평화메시지를 낭독했다.

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축하 메시지를,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등을 당했을 때는 위로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한국에 관심을 보여왔다. 또 2000년 3월 바티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권유하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뒤로 교황청은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한에 수십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화해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첫 남미 출신 교황... 가난한 자 위한 파격행보

프란치스코 교황은 ?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78) 교황은 지난해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취임했다.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자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청빈하고 겸손한 인품으로 교황에 오르기 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를 늘 강조해왔다.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철도노동자 가정의 5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화학 기술자가 되려 했다가 스물두 살 때 예수회에 입문해 수도사의 길로 들어섰다. 1969년 사제품을 받은 후 1980년에는 서른여섯의 나이에 산미겔 예수회 수도원 원장으로 발탁됐다.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에 오른 데 이어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됐다.

평생을 기도와 고행을 통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그는 대주교가 된 뒤에도 운전기사도 두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유명한

다. 대주교 관저에 살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교황 즉위 후에도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0년 관행을 깨고 호화로운 교황 관저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성녀 마르타의 집'에 머문다. 첫 강론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선언했다.

취임 후 처음 맞은 '성 목요일'(3월28일)을 맞아 납자 신도 열두 명의 발을 씻겨주던 기존 세속 관행을 깨고 로마의 한 소년원을 찾아 소녀와 무슬림, 그리스정교회 신도 등 소년원생들의 발을 씻겨주고 입을 맞췄다.

11월에는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5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경섬유종을 앓아 얼굴이 온통 흑으로 뒤덮인 중년 남자를 껴안아 줬다. 이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자신의 생일에는 노숙자 세 명을 불러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한반도의 중요성과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연합뉴스



2014년 Summer Special

그린피 할인 Event

8월 1일(금) ▶ 8월 31일(일)

특별할인				(단위: 원)			
구분	T/O 시간	월~금	토~일(공휴일)	구분	요일	선호시간	비선호시간
18홀 기준	07:00~07:56	63,000	133,000	1박 2일 (36홀+조식+골프텔)	월~금	176,000	156,000
	08:03~09:00	73,000			금~토	236,000	226,000
	12:20~13:44	93,000			토~일	276,000	266,000
	13:51~14:30	83,000			일~월	216,000	206,000

*특별할인은 한정하지 않으며, 카트비 별도금액입니다. *1박2일 패키지 요금은 4인 기준 36홀 원로기준입니다. *1인 무료 라운드상품권은 당일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요금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할인					
내용	대상	기간/해당요일	그린피 할인 등	비고	
사이버회원 추가할인	신규가입자 및 기존회원	2014. 7. 7일~9. 30일	추가 10,000원 할인	주중, 주말 모두적용	
Lady Day	여성고객 전원	매주 월요일	그린피 63,000원 적용		
그랜드 시니어 할인	만 60세 이상 고객 전원	월~금(공휴일 제외)	추가 10,000원 할인	프린트 신분증 제시	

*남성 복장은 무릎 위 반바지는 착용할 수 없으며 7부 반바지는 허용됩니다. *위 공지 카트비는 별도이며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함평다이내스티컨트리클럽

DYNASTY 061.320-7700/7777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서암매길 242